

## 수자원현안위 토론회

2024. 2. 16

중부대 이 주 현

수자원학회의 현안위가 2기를 맞이한 만큼, 사회적 미제로 남아 있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학술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과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.

1차 토론회: 하천자연화, 2차 토론회: 대심도 배수터널, 3차 토론회: 국가 치수대책  
향후 이수와 가뭄에 대한 이슈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.

금일 발표내용에 대한 의견

### 권현한 교수님

-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기본개념의 왜곡과 적용방향성의 상실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임
- 행안부의 방재기준용어(방재성능목표 강우량)와 환경부의 치수 및 하천홍수관리기준용어(빈도별 설계강우량)의 이원적 적용은 정부, 업계, 학계, 일반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, 국가차원의 연계된 치수대책 마련에도 균형감과 일관성을 해칠수 있다고 판단됨
- 치수대책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계와 밸런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. 예를들면, 특정시에 특정하천유역에 대한 치수대책 수립결과를 보면, 방재성능목표 강우량(100 mm - 100년빈도)이 시 전체의 하수관거 설계(내수침수대책)에 적용되고, 유역내 소하천은 50년 빈도의 설계강우량으로 설계(외수범람대책)되어 있는 경우에 시 전체의 치수대책에 대한 물질의 연계와 대책별 밸런스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.
- 그러한 차원에서 권 교수님이 제안하신 방재성능목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계별 선택적 목표설정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.
- 다만, 기후변화를 대비한 할증율 도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좀 더 과학적 고찰과 정책적, 경제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 현재의 과학기술이 단순한 할증율을 적용할 만큼의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, 기후위기 시대 초반부에 사용한 개념인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
- 학술적 성과를 기술적으로 표준화해서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.(GCM, 시나리오, 빈도해석방법, 매개변수의 추정 등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를 보여줌 - 믿음의 문제가 아님) -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의 채택이 필요한 시점임

### 박병언 과장님

- 환경부가 치수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있는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만큼 과거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
- 4대부분 8대과제(인프라확충, 예경보고도화, 법,조직 정비 등)는 예정대로만 시행된다면 상당한 실효성과 피해저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한가지 아쉬운 점은, 홍수 및 이수, 가뭄관련 R&D의 지속적 투자를 통한 관련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. 박 과장님은 이미 미래수자원 R&D 예타를 통과시키신 장본인 이기도 하신 만큼 R&D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므로 지금 발주된 20여개의 크고작은 물관련 R&D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. 단순히 KEITI의 전문인력 몇분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규모이며, 예타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예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계획이 환경부의 치수대책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.

### 종합의견

- 과거의 자료와 현상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음. 동일한 홍수를 분단위, 시단위, 일단위로 평가함에 따라서 몇십년에서 몇백년의 빈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. - 재현기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지도 모르며, 경우에 따라서는 재현기간을 대체할 만한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.
- 환경부와 행안부의 치수대책에 대해서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 설계기준, 치수대책의 기준이 되는 용어를 공감하고, 빈틈이 없는 균형 잡히 치수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